

<1번.>

공감이란 다른 이의 상황이나 상태 및 감정을 본인과 동기화하여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들은 공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우선 제시문 (가)에서의 아이히만은 유대인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 (가)에서의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국가의 명령에 의한 의무감으로 지시를 따랐고 이는 명령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유대인에 대한 학살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는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공감을 하지 않아, 죽는 유대인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동질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유대인을 죽이는 데에 대해 아무런 가책도 들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명을 받들었다는 변명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제시문 (나)에서의 시적 화자는 비둘기의 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다소 공감한다. (나)에 의하면, 시적 화자는 포스터 속의 비둘기가 과거에 누리던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답답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공감하고 매우 안타까워한다. 이는 타자의 심정에 대해서 본인의 일과 같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공감의 정의와 일치한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를 보면, 제시문 (다)에서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보이는 태도는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다)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둘다 결국엔 죽는다고 말한다. 이는 타자와 나를 동질화 하는 공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결국에 뤼카온을 죽인다.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본인도 죽을 운명이고, 그대도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라면서 그것이 지금임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운명에 의한 죽음의 합리화를 이뤄낸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은 것이다. 뤼카온이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선사한 것은 전체로 보면 뤼카온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다)의 아킬레우스의 태도는 (가)의 아이히만 태도하고도 매우 유사하다. 둘 다 타자의 공감에 동의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다. (가)에서는 국가의 명령, (다)에서는 운명을 그 근거로 대고 있다. 또한, (가)와 (다) 모두 본인들의 행위, 즉 공감하지 못하는 행위가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가)에서는 국가의 명령은 의무감을 유발하고 이는 곧 따라야 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국가의 명령이 절대적임을 암시한다. (다)에서는 운명이라는,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절대적인 개념을 제시한다. 즉, 둘 다 본인의 행위가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2번>

사람은 항상 이성적일 수 없으며 감성의 영역도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은 이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악한 행위이며,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폭력에 대해서는 행하기 전에 이성의 영역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상상을 해 보지 못하거나, 상상을 했더라도 결국에 폭력을 행한다면, 이는 사회에서의 보편 타당한 논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 주체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상상해보는 여부 및 폭력을 행하였는지의 여부가 그 두 가지 기준이다. 상상을 통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사고 및 폭력을 이행하지 않음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에서의 아이히만은 폭력의 주체로 유대인을 학살한다. 아이히만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즉 상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아이히만은 그저 국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응하여 유대인을 학살하였고, 이는 폭력을 완전히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본인의 행위에 대한 상상을 하지 않았고,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에서의 아킬레우스는 폭력의 주체로 뤼카온을 살해한다.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 둘 다 결국엔 죽는다는 말을 통해 공감한다. 또한 본인이 뤼카온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아 상상이라는 첫번째 조건은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뤼카온을 살해한다. 이는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지만, 결국에 운명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뤼카온에게 죽음을 선사한다. 이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아킬레우스는 본인의 행위에 대한 상상은 하였으나,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제시문 (라)에서의 심리학자 에버렛 워딩턴은 강도에 의한 끔찍한 경험을 한다. 그리고 강도에 대한 복수심으로 폭력의 주체가 되어 강도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해 본다. 즉, (라)에서의 폭력의 주체는 에버렛 워딩턴이 된다. 그러나, 그는 상상을 통해 본인의 폭력적인 성격을 깨닫게 되고, 용서를 통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본인 또한 강도와 다를 바가 없이 폭력적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는 용서를 통해 본인의 죄성과 폭력적 성격에 대해서 신앙적 용서를 받고, 강도에 대해서 본인이 용서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통해 강도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에버렛 워딩턴은 복수의 상황을 상상해 보았고, 용서를 통한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이는 곧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